

기고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

6·13 지방선거 이후 100년

이 문제다. 솔직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다운 면모가 부족했다. 후보자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정책도 비전도 별로 엇보이지 않았다. 대다수 후보들은 '문재인팔이'에 열심했다. 현수막을 보면 심지어 '나라는 문재인 우리 동네는 000'이라고 할 정도로 비교법이 어울리지 않는 구호가 난무했다.

'문재인팔이' 성공한 당선자들

어떤 시민은 이런 모습을 놓고 "자신감이 부족하고 머리에 생각조차 없는 이들이 당선에만 눈 먼 무리들"이라고 심한 비판을 했다. 필자는 그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었다. 지난 선거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자던 언론의 부추김도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는 그 말마저 쏙 들어갔다.

이유가 무엇일까.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 등 정치적 분위기가 모든 것을 압도하고 말았다. 결국 인물론을 사라지도록 만든 지방선거가 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본인의 역량으로 당선되지 않았다.

물론 열심히 거리에 서서 머리를 조아렸고, 밤낮으로 사람들을 만나 선거명함을 뿌리고 약속을 한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명함을 받은 이나 약속을 한 이들이 얼마나 당신을 기억했을까. 투표소에 가기는 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기표를 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은 광주시장이나 전남 도지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들 '문재인팔이'에 성공한 시장이나 군수·의원들이 있었을 뿐이다.

광주는 이상하리만치 투표할 때마다 유난히 '스윙보터' 역할을 했다.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다시 민주당을 지지하더니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이번에는 다시 민주당을 선택했다. 우리 정치는 선거 때만 되면 이합집산을 하는 정당구조 때문에 정당의 정당성도 없고 미래를 내다보는 정치인도 없다.

이런 논리로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압승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공복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가져들이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스윙보터가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우리

의 스윙보터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정치적 구조 때문에 지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개발이나 정치적 결단이 없다. 돌이켜 보라. 광주전 전남이든 대한민국이든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정책이 하나라도 있는가. 말로는 5천년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100년 역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 단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합집산의 정당구조도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미래 내다보는 정책개발 필요

이웃 일본 요코하마는 60년대 말과 70년대 초에 만든 도시정책이 수 차례 시장과 의회가 바뀌어도 50여년 동안 골격을 유지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광주는 문화도시를 부르짖으면서도 아시아문화전당 외에는 문화정책이 실종된 상태이고, 100년을 내다보는 문화전략은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시장이란 구정장이든 어떤 의원이든 4년 임기동안만 하겠다는 각오로 눈 앞의 민원보다는 모두의 머리를 모아 100년 광주를 내다보는 초석을 쌓는 영웅을 기대해본다. 제발.

사설

당·정 '광주형 일자리' 총력 지원을

민주당과 정부가 잇그제 '광주형 일자리'를 토대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해 설립하는 합작법인에 대해 총력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세부조율 과정에서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특히 현대차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더욱 그렇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잇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광주시와 현대차 간 협약식이 연기된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내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 의지가 다분하다.

홍 원내대표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상생형 미래 일자리 형태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광주형 일자리를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타 지자체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여부에 주목하며 적용 가능 여부를 타진해 오고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 하지만 현재는 대기업의 높은 임금을 낮춰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협약이 성사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이 불문가지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부족한 청년 일자리의 유일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반드시 성사시켜 나가야 마땅하다.

전북 섬 사업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진도 '전복 섬' 사업이 수십억원대 손실만 떠안고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이 사업은 민선 6기 전남도의 핵심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답답함이 크다. 이같은 결과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에 따른 것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복 섬 사업은 전남도가 전복의 중국 수출진진기 활용을 위해 추진한 민선 6기 핵심공약이었다. 지난 2014년부터 150억원을 들여 진도군 근대항에 해조류·가두리양식장 등 모두 171ha 규모의 전복 섬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화권 수출전략단지 육성을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해조류양식장 조성과정에서 자재업체가 부도로 납품을 포기했다. 또 시설물까지 파손되면서 책임 공방이 일었다. 분쟁이 지속되자 대

중재원은 전남도와 시공사간 2대 1 가량 책임비율을 인정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는 중재판정으로 떠안게 된 31억원 중 15억 여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다. 그러나 추경심의 등 나머지 비용마련 과정에서 의회 반발 등을 감당해야 할 것이 필수이다.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구공권 청구의 후유증도 우려스럽다.

전복 섬 사업 추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업이 중단돼 결과적으로 형세와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민선 7기 출발시점에 각종 공약도 이와 유사한 길을 걷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전복 섬 사업의 후유증 최소화는 물론, 민선 7기 공약추진 과정에서 전복 섬 사업 반면교사 삼을 일이다.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Jeonnam Daily,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es.

Table with emergency and life information numbers, such as 1577-1366 for life emergencies and 1339 for medical emergencies.

독자광장

여름철 식중독 주의 생활화 해야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도와 설사 증세를 호소하는 식중독 환자들이 늘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음식으로 세척한 채소,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된다. 주요 증상은 묽은 설사와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이다. 증상이 더 심할 경우 출혈성 대장염, 용혈성 요독증후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백희희 무안소방서 민원팀장

형이상학적 사고로 백독백습 스윙을 하라



이봉철의 알짜배기 골프

35 -1 세종대왕의 골프경영

하늘이 내린 군주 충녕은 조선의 제4대 군주이며 연이화자이다. 우리는 그를 세종대왕으로 칭하면서 중국 성군 요순에 비견하여 해동요순이라 칭송한다.

약자들을 사랑하고 동반자를 존중한다. 학문을 장려하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시킨다. 인간에 대하여 차별없는 자비심으로 덕치를 실현하는 유교적 성군인 세종은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킨 임금이다.

세종의 스윙은 백독백습이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게을리지 않아 독서를 생활화한 무서운 공부꾼이다. 전형적인 학자로 영명하고 총명한 스윙을 구사한다. 그의 품성은 지혜로워 하수들에게는 인자하고 고수들에게는 매사 지극하다. 반성을 위한 수신제가의

학문적인 태도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스루 더 그린에서 완벽한 샷을 고심하며 실리와 실용적인 스윙으로 이어진다.

골프는 변화무쌍하고 하고 싶은대로 되지 않는 운동이라고 많은 골퍼들은 생각한다.

엔돌핀 솟게하는 골프 라운딩으로 만드려하지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연습을 게을리하다보면 청개구리 같은 라운딩이 되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곤 한다.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의 나락에 빠져 든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 일어설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한 골퍼가 되고 만다.

빛은 어둠속에서 더 밝게 비추듯이 성공하는 골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실패는 성공을 안겨줄 매개로 생각하고 재 정진한다.

실수속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라는 것이다.

싱글플레이어들은 보통의 비기너들과 다른점은 실패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다. 실패했을 때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슬기로운 골퍼이다.

실패를 맞보지 않고는 그 아픔을 알 수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실패는 절망의 쓴 맛을 느끼면서 생각하게 하고, 절망의 생각속에서 인내를 주며, 인내속에 노력을 할수있게 한다.

세종은 문화민족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위한 문치군주의 스윙을 한다.

거문고와 가야금으로 삶을 즐길 줄 아는 예능감 만방의 리더로 실용의 고수이다.

후손에게 강대한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의지와 욕망, 강력한 통치를 행동으로 보여 주며, 다독의 스윙에서 기억력의 스윙으로 진화한다. 때론 비만으로 고생하기

도 했지만 검소하고 간결한 스윙이다. 책을 한 번 읽으면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없었던 리더는 인재를 뽑아 기르고 두뇌집단을 움직인다.

슈퍼맨은 낮은 마음으로 백성들과 소통한다. 신분이 천민이든 노비이든 구별하지 않고 재주를 시험하여 함께 동력한다. 고수와 하수의 차별을 없애는 인간에 넘치는 위대한 지도자는 포용의 스윙을 한다.

또한 여론조사로 통합의 샷을 한다.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민심을 알기 위한 민주적인 투표제 도입하여 백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다.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는정보력은 세종대왕의 맨파 위이다.

슈퍼맨은 하늘을 대신하여 백성을 위하는 배려의 리더이다. 노비에게 출산후가를 주었으며,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연이은 흉년으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왕족이 소유한 토지를 줄이고 이 토지를 저렴하게 백성들에게 빌려주는 혁신의 리더십이다.

골프클럽니스트, MFS골프코리아 소속 프로, 체육학박사

기고



김형석
현대기아자동차 홍보팀 차장

알고 보면 재미있고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들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친환경차이자 높은 연비로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기술의 산물일 것 같은 하이브리드카가 실제로는 119년전인 1899년에 이미 만들어졌다. 독일의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가 믹스테(프랑스어로 혼합된 이라는 의미)라는 차명을 가진 전기와 가솔린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최초의 하이브리드카를 만들었는데 최고 속도는 시속 50km였다고 한다.

그럼 세계 최초로 시속 100km를 돌파한 차는 과연 어떤 차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한 차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답은 전기차이다. 1899년 파리 교외 샤토루 공터에서는 영국귀족 '루바 경'의 전기자동차와 벨기에의 자동차 매니아 '까뮈 제나지'의 전기자동차 '라 자메 콩텐'이 세기의 자동차 속도 대결을 펼쳤다.

지금은 우리 삶에 집과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 자동차이지만 실제로 자동차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 않다. 우리에게선 이젠 익숙한 하이브리드카는 전기와 휘발유 등 두 종류 이상의 동력

이었다. 1900년대 초까지 자동차 시동은 외부에서 쇠막대기를 끼워 돌리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1907년 한 신사가 시동을 못 거는 여성을 위해 쇠막대기를 돌리다 그만 역회전한 엔진 때문에 튀어나온 쇠막대기를 머리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신사는 바로 캐딜락의 사장인 헨리 릴랜드의 절친한 친구였다. 릴랜드는 친구의 죽음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기술자들에게 쇠막대기 없이 차 안에서 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지시했다. 그런데 캐딜락의 기술자들은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당시 전기의 대가였던 '찰스 케터링'에게 이 문제를 의뢰했고, 그는 결국 1911년 세계 최초로 전기로 시동이 걸리는 자동 시동기를 발명해 1912년 캐딜락 모델에 장착했다.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들은 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차량은 1903년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들여온 포드A형 리무진차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한 차는 무엇일까?

정답은 최무성이라는 정비기술자가 미군에게 받은 지프 엔진, 변속기, 차축을 이용해 만든 시발자동차이다. 시발(始發)은 '처음으로 국산차를 만든다'는 한자어인데 그래도 국산화율이 50%가 넘었다고 한다. 특히 차체는 쓰다남은 드럼통을 직접 손으로 펴서 만들었다고 한다. 시발자동차는 성능은 떨어졌지만 전쟁 후 차가 귀하던 시절이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한다.

우리 회사 자랑을 한다면 기아자동차 역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엔진을 가장 먼저 국산화해 적용한 것이 기아자동차의 '브리사'이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모는 택시가 바로 '브리사'이니 영화를 본다면 이 차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도 좋을 듯하다.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본다. 100년, 아니 수십 년 후 우리 후손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할 지도 모르겠다.

"자동차 역사를 보니까 2000년대 초까지는 사람이 차를 손으로 직접 운전했다. 신기하지?"